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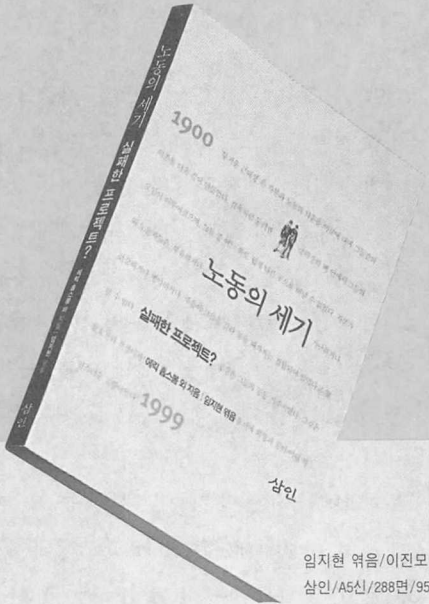
노동운동계에 던져진 세기적 '화두'

에릭 홉스봄 외의 《노동의 세기 실패한 프로젝트?》를 읽고

김형기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전세계의 노동운동이 위기를 맞이했다. 그 원인을 홉스봄은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시장 이데올로기에 굴복한 것과 시민의

탈정치화에서 찾는다. 바우만은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노사관계가 임시화되는 현상을 탈근대적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인 노동운동의 비전은 어느 누구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임지현 역음/이진모 외 옮김
삼인/A6신/288면/9500원

‘노동의 세기’는 실패로 끝났는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운동의 퇴조라는 세기말의 현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노동운동의 시각에서 20세기를 정리하고 있는 《노동의 세기 실패한 프로젝트?》는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동유럽 개혁공산주의, 제3세계 주변부 사회주의의 역사를 검토함으로써 이런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곤경에 빠뜨린 탈근대적 현상

홉스봄은 소련식 사회주의의 붕괴로 사회주의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노동운동은 실패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에서 있다. 그는 혁명적 사회주의 붕괴 못지 않게 개량적 사회민주주의 붕괴를 강조한다. 복지국가를 통한 자본주의와 노동운동의 개혁주의적 공존은 대공황과 독일국가사회주의 악몽, 공산주의 소련에 대한 공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홉스봄은 반문한다. ‘스탈린이나 히틀러 없이 베른슈타인이 이길 수 있었을까?’

20세기말 노동운동을 위협하는 것은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시장 이데올로기에 굴복하는 것과 시민의 탈정치화다.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제3의 길은 이론적 굴복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여기서 홉스봄은 답이 없다.

자본과 노동간에 타협했던 포디즘이 해체되고 신자유주의가 지배함에 따라 노동시장이 유

연화하고 노사관계가 임시화되는 현상을 두고 바우만은 ‘무거운 근대성’에서 ‘가벼운 근대성’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단기적 심성, 유연성, 노동생애의 불확실성, 노동자들의 개별화, 사회와 제도에 대한 확신의 붕괴, 정치참여와 집단행동에 대한 의지의 약화 등 탈근대적 현상이 노동운동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탈근대적 상황을 심각히 고려하는 바우만에게 노동운동의 미래는 비관적이다. 탈근대에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20세기에 걸쳐 서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제3세계에 나타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텐펠데에 따르면, 서유럽 노동운동을 이끈 사회민주주의는 입헌적 국가형태를 가지고 노조에 기반한 이익정치적 투쟁이 제도화될 수 있었던 유럽의 근대화 과정에 발생해 성장한 특수한 역사적 현상으로서, 사회주의 붕괴와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현재 소멸하고 있는 중이다. 입헌적 국가형태인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노조에 기반한 이익정치적 투쟁이 제도화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유럽이나 비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운동은 헛된 일인가?

국가사회주의체제를 위로부터 혹은 아래로부터 개혁하고자 했던 동유럽 개혁공산주의도 실패했다. 그래프는 서구의 시민적 민주주의와 소

련식 사회주의의 모델에 대한 제3의 대안적 길을 모색했던 개혁공산주의는 소련의 개입으로 좌절됐다. 소련의 붕괴 이후 서방 강대국의 세력권에 편입되고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실패했다고 분석한다.

21세기 노동운동의 비전은 무엇인가

제3세계 주변부 사회주의는 어떠한가? 임지현과 차문석은 제3세계에 도입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인간해방의 정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족 독립과 근대화 달성을 위한 민중동원의 이데올로기로 이용됐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해방의 정치와 근대성은 없고 노동동원을 위해 노동자를 억압하는 생산성의 정치와 기술의 근대성만 지배했다. 이제 상실된 해방의 근대성과 정치를 찾아 마르크스주의 노동해방의 메시지를 성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21세기 노동운동의 비전은 무엇인가? 지역, 여성, 인종과 노동문제의 관련성을 다루는 이 책의 후반부 글들은 성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문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해방의 프로젝트를 시사하는 듯하다. 20세기 노동운동이 지향한 발전모델을 넘어서는 21세기 대안적 발전모델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이 화두가 21세기 여명기 노동운동에 던져져 있다.●